

광주 군공항 이전·시립요양병원 논란 클 듯

시·도의회 내일부터 상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청렴도 집중 감사 대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광주시의회의와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광주시의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별로 광주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103개 기관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개 상임위원별로 이들 기관에 대해 모두 1124건

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운영위 36건, 행정자치위 228건, 환경복지위 289건, 산업건설위 380건, 교육문화위 191건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까지 87개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16곳이 늘었다.

앞서 시의회가 일부 출자 출연법인이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이

다.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지 선정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광주군공항 이전, 환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립제1요양병원 문제, 대광여고 혁신학교 논란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회는 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3일간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특히 2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보건의료연구원 운영,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출연기관 경영 평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행감에 앞서 기획행정위 56건, 보건복지환경위 115건, 경제관광문화위 43건, 안전건설소방위 23건, 농업해양수산위 13건, 교육위 5건, 예결위 27건 등 총 282건 자료를 전남도에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소방본부장 김조일

제16대 광주소방안전본부장에 김조일(50) 소방준감이 임명됐다. 신임 김 본부장은 1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김 본부장은 대전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소방간부후보생 제9기 소방위로 입문해 행정자치부 소방국,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등을 거쳐 강원소방학교장,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보급 자리이며 예술의 향기와 첨단과학산업이 공존하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 광주 발전을 위해 1300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재운 제15대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경기소방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시장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영국 국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휴먼시티 광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자료사진>

전남도 어업지도선 '노후화 심각'

18척 중 8척 20년 넘어

바다 위 불법조업 등을 단속해야 할 전남도 어업지도선 18척 중 8척이 2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어업지도선 78척 중 내구연한이 20년이 넘는 지도선은 44척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미만된 어선은 10척으로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남의 어업지도선 18척 중 8척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어선은 7척, 10년 미만 어선은 3척 밖에 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시장 英 국회서 '스마트휴먼시티' 주제 발표

친환경차·에너지밸리 소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0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국회 인공지능 상하원공동위원회(APPG AI)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휴먼시티 광주'를 주제로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자격으로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융합산업 등 광주시의 주요 미래산업을 소개했다. 또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 인권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시장은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2018 세계인공지능포럼에 APPG 인권위원회를 정식 초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APPG AI 사무국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BIC(Big Innovation Centre)와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 및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간공원 개발 1단계 사업 우선협상안 오늘 논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거버넌스(이하 민간거버넌스)가 수량·마복·송암·봉산 등 광주지역 4개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기준안'을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한다.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민간거버넌스 제5차 회의를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소위원회가 마련한 1단계 사업 대상 공원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기준안이 마련되면, 이미 제출된 12개 제안서를 개봉해 기존 광주시 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4개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마련된 기준안을 근거로 광주시가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거버넌스는 중앙, 일곡, 중외 등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사업 추진 방향도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정 지침을 적용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단계 사업대상 중 중앙, 일곡, 중외 등 광주의 대표공원들이 포함된 만큼 고층 아파트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을 최우선으로 해 공원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광주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천을 태양광 발전 메카로 만들어야"

강기정 시의회 토론회서 주장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광주천을 태양광 발전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서 에너지산업기술원과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더 큐브'(the CUBE)가 공동 진행한 '100%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자들은 "광주를 100%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사진) 전 국회의원은 기초연설을 통해 광주를 재생에너지 100%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햇빛이 강으로 흐르는 햇빛-물 순환 광주천'을 제안했다.

강 전 의원은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역

으로 현재 광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5년 기준 1.4%에 불과하지만 2022년 11%, 2042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자립해야 한다"면서 "광주천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준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박준석 국민대 교수의 기초발제에 이어 최지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기환 에너지연구원 박사, 김은희 전남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식량기구 수산업 국제컨퍼런스 내년 여수서 열린다

138개국 300여명 참석

세계식량기구(FAO)가 주관하는 수산업 관련 국제컨퍼런스가 내년 하반기 여수에서 열린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FAO 수산업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 FAO 수산양식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 개최하기로 승인했다. 내년 국제컨퍼런스에는 138개 회원국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그동안 FAO 국제컨퍼런스 유치에 위해 행사 지원 예산

확보, 국제회의 여건과 행사 지원 계획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내년 9~11월 중에 열릴 예정인 국제회의에는 회원국 정부, 학계, 국제기구, NGO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가 열리는 5일간 수산자원 이용권에 대한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고 어업권리 기반 접근법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국내 자율관리어업·수산자원관리제도를 국제 규범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수산양식 기술 이양 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photonickorea.org
Photonics KOREA 2017

Gwangju Photonics technology Road show & Business Plaza 2017

2017 광주 빛산업 유망 기술 로드쇼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7. 12. 5(화) ~ 6(수) 2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 ▶ 광주 광산업 유망 기술 로드쇼 - 12. 5 ~ 6 (2일간)
-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12. 5 ~ 6 (2일간)
- ▶ LED조명 활성화 방안 설명회 - 12. 5 (화)
- ▶ 2018년도 광산업 해외 프로젝트 설명회 - 12. 6 (수)

로드쇼 POINT !!

- ▶ 광주지역 광산업 분야 대표기업 80여개 업체 참가
- ▶ 20여개 4차산업 관련 신기술제품 전시 (IoT, ICT, ESS, 광의료기기 등)
- ▶ 광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로드쇼로 참가비 무상지원 등 다수혜택과 실질적인 국내외 바이어에게 홍보기회 제공
 - 포스터 블록 전시 홍보 (참가비 무료)
 -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 항공료 70%, 숙박 2박 100%
- ▶ 국내외 바이어 20개국 150명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제공
- ▶ LED조명 활성화 방안 설명회, 2018년도 광산업 해외 프로젝트 설명회 등
- ▶ 국내·외 광산업 마케팅 정보제공으로 참가업체에 실질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 전시회 선정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한국광산업진흥회

참가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지원부 Tel. 062-605-9626 / 9640